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정책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핵심은 '생활 SOC'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즉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토목 공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생활 부문에 다양한 사업을 통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2019년도에 국비 8조 7천억 원과 지방 자치 단체 매칭 예산을 합치면 1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10분 내 체육 시설' 등 편의 시설 확충에 1조6000억 원, 노후 공공 임대 주택 시설 개선과 같은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 2조3000억

정말, 사람이 먼저다

원, 취약 지역 도시 재생 사업에 1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개념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기존의 도로, 철도, 건설 등 개발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체육 센터, 박물관, 도서관, 어린이집, 공공 의료 기관 신설, 전통 시장 등 실제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시설 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사람들이 정책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자신들의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체감도와 맞닿아 있다. 단순히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단한 변화나 발전은 더 이상 개인이 자신의 삶에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활 SOC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 등을 통한 정책의 개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용을 할 것이다.

지난 9월4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도 "그동안 우리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펼쳐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에는 관심을 기울

이지 못했다. 앞으로는 공공 투자도 지역 밀착형 SOC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생활 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 대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이번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정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도로나 철도 건설에서 생활 편의 시설로의 사업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점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비슷한 '건설'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번 정책과 예산이 정말 지역에 대한 투자가 되려면 정말 지역에서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어떻게 가능하고 운영되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지역에서 절대적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공간들이 예산 부족과 운영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생활 문화 시설이 개점 휴업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 문제가 더러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면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여타의 사업과 크게 구별되지 않을 것이 뻔하고 인구 적별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 앞에서 향후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문제는 결국 사람이다.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현장을 누비면서 활동할 수 있는 민관의 활동가가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이며, 공간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체들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지점에서 정부가 '생활 SOC' 사업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지역과 동떨어진 형태로 남아 소수 정치인의 업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지금 지역에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부족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고 운영되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썼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제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사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진짜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을 얼마나 발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칼럼



장현권  
광주 서정교회 목사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농성 중인 최승우 형제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 여름은 폭염과 태풍 그리고 폭우로 버거운 하루하루였지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뜨거운 계절입니다. 지난 3일 형제님이 국회 앞 농성 300일째를 맞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6월 하순경 감사법 제정을 위해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김영근 대표님과 함께 수박을 사서 형제님을 방문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형제님은 수박 한 조각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보면서 "아! 이처럼 이웃을 생각하는 형제가 어찌하여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저는 속으로 물었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을 한 사건이 있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하루빨리 진상 규명을

지요. '한국판 홀로코스트' '제2의 삼청교육대' 라고 하는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이 형제 복지원 사건이지요. 그 가운데 피해자 한분이 바로 최승우 형제인 것을 알았습시다. 이유로 없이 끌려간 것 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마치고 하룻길에 부산 개급파출소 앞을 지나 집으로 가던 중 파출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경찰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방을 뒤졌다고 했지요.

가방에서 빵이 나오니까 그 빵을 어디서 훔쳤냐고 다그친 것입니다. 사실 그 빵은 급식으로 받은 빵이다, 라고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던 라이터로 최승우 형제님의 성기를 찌르고 고문이나 마참가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결국 절도범으로 몰아 형제 복지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학생을 잡아 가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만든 내무부 훈령 제 410호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등 국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한 소를 한 것입니다.

작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약자. 소위 부랑인 남마유이 양 어찌 등은 수용 시설로 모두 다 잡아 가두라는 훈령이지요. 명백한 국가 폭력입

니다.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며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지요.

그곳에선 온갖 만행이 서슴없이 자행됐습니다. 3500명을 교회당에 가두고 예수 이름으로 폭행을 저지른 일부터 굶기고, 때리고, 인격 모독 행위가 벌어졌 습니다. 물이 부족해 온몸에 피부병이 돌아도 방치됐으며 아이들을 입양시킨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폭행을 당해 장애인이 되기도 했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인권 유린이 무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곳에서 최승우 형제님은 무려 5년 가까운 사춘기 시절 벌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친동생도 오락실에서 놀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왔다고 하지요. 울먹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 동생도 부랑아가 돼 2009년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가족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가족 파탄이 당시 형제복지원 감금과 만행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형제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지난 2014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생존자 모임에 이끌고 있는 한중선 대표를 만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 현재 최승우 형제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큰 도움이 못 돼 너무나 죄송합니다.

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형제 복지원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987년의 세월호 사건 처럼 말입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음의 수용소였겠지요.

최승우 형제님, 지난 2014년부터 진상 규명을 외치며 노숙 농성을 한지 300일이 넘었지만 많은 이들의 무관심 때문에 너무도 억울하다고 했지요. 그동안 식발, 단식 국도 대장정도 했지만 국회의 원도 별 반응이 없어서 너무도 억울하다고 했지요.

다행히 며칠 전 검찰개혁위원회가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 상고'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겠지요.

최승우 형제님, 어둠은 빛을 이길 적 이 없다는 이야기가 함께 인사 드립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광주에서 응원하며 건강을 기도합니다.

기고



정두용  
(사)청년문화회대표

"문화 예술인들은 열심히 일해도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죠?"

"문화 예술? 그런 건 먹고 살 만한 사람들과만 즐기는 거 아니에요? 저랑은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문화 예술이 향후 대상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까요?"

문화계에서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위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전업 문화 예술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비람은 '문화로 먹고 살기'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문화로 먹고 살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하루 8시간 주 5일간 일하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이것 아닐까? 나아가 최소한의 생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전국 연대가 간다

활 수준이 아니라 사람다운, 인간다운,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적정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바로 건강하고 좋은 사회일 것이다.

바로 현재 전업 문화 예술인들의 상황은 어떤가? 2016년 진행된 광주 지역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소득 설문 문항에서 999만 원 이하 예술인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수입마저 '비 예술 활동 수입'이 55.0%의 평균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예술 활동 수입 비중보다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둘째,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가? 문화 예술은 먹고 살 만한 여유 있는 사람이 공연장, 전시장 가서 즐기는 거지 일반 시민들과는 별반 상관없는 판 세상이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팍팍한 사람들에게 문화 이야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가 문화이고, 새롭고 다양하고 더 질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 역할이다. 더 이상 문화 예술이 그들만

의 리그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도시나 지역에서 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바로 건강하고 좋은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업 문화 예술인들의 상황은 어떤가? 2016년 진행된 광주 지역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소득 설문 문항에서 999만 원 이하 예술인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수입마저 '비 예술 활동 수입'이 55.0%의 평균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예술 활동 수입 비중보다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둘째,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가? 문화 예술은 먹고 살 만한 여유 있는 사람이 공연장, 전시장 가서 즐기는 거지 일반 시민들과는 별반 상관없는 판 세상이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팍팍한 사람들에게 문화 이야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가 문화이고, 새롭고 다양하고 더 질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 역할이다. 더 이상 문화 예술이 그들만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의 힘 키우기' 라는 문화계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광주 지역 청년 문화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넘어 '전국 단위 청년 문화 연대 활동'을 꾸리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시작을 위한 자리로 최근(8월 25일 ~26일)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뺨'이 되자는 작당 모의를 컨셉으로 한 전국청년 문화활동가대회 '전국문화해적대결'이 광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전국문화해적대결은 최근 몇 년간 종종 열렸던 전국 청년 문화 활동가 모임과 비슷하지만 '지속적인 전국단위 젊은 문화 연대'를 시작하자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고 1박 2일의 일정을 통해 앞으로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 지역을 돌아가며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연대 모임을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으게 됐다. 젊은 문화 예술인들의 전국 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체 간 협업, 정책 제안, 협업, 공문화 작업 등 무궁무진한 것이다. 청년들의 이런 꿈틀거림에 많은 응원과 격려 바란다.

社說

행정 공백 없도록 단체장 수사·재판 신속히

광주·전남 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29명 중 절반가량인 16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중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나머지 1명은 형사사범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사범은 수사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합평군수와 광주 광산구청장이 각각 2년씩의 구형을 받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거 사범은 아직 구형도 하지 못한 상태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은 지난 6월에 당선된 만큼 올해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선거 사범의 경우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데, 피고인 측이 질질 끌면서 2-3년이 지나 확정 판결이 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형사 사범의 경우는 선거 사범처럼 신속 처리 원칙이 없어 임기 막판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66일간의 대장정 광주비엔날레에 관심을

'2018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현대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가 오늘 공식 개막해 11월 11일까지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북한 집체화가 주를 이루는 미술전 등 불거리도 넘쳐 난다.

이번 비엔날레는 43개국 165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일본 팝아트 선구자 '나라 요시모토' 등 스타 작가들이 유난히 많은 게 특징이다. 한국 작가는 43명이며 광주·전남 출신 작가도 10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전쟁과 분단, 냉전, 테러 위협, 독재, 난민 등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룬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또한 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전시공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전관 등 두 곳이 메인 전시관으로 활용되는 가운

데 옛 국군광주병원, 무각사, 시민회관, 전일빌딩, 5·18 당시 시민군이 사용했던 옛 전남도청 회의실인 5·18민중문화기념관 3관 등 광주 전역이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 감독 체제 대신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주제전을 선보이는 점이다. 이들 주제전은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4개 섹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3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북한 미술 섹션은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최창호 인민예술가 등이 참여한 집체화 중심의 작품(22점)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문화의 계절 가을이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 행사도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에 불거리도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니 이 가을, 가족들과 함께 비엔날레 전

시장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져 보자.

無等鼓

이창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는 1980년대 어린이 유포 살인 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다. 소설은 아들이 살해되어 분노하던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범인을 용서하려 하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은 범인이 먼저 신앙적 구원 속에 마음이 평화로워져 있음에 절망한다는 이야기다.

소설은 12·12와 5·18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씨가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 정의와 국가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근

수법이 치졸하다. 권력 재판에서 판사는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았다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에 발매됐다. 모순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 주장하는 치매 투병 기간 중 고등학교 동문 체육 대회에 참석하고 자택에서 신년회를 갖는 등 어느 전직 대통령보다 정열적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그의 선택적 기억은 기묘하기까지 하다.

'벌레 이야기' 속 회생자 엄마는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그걸 용서할 수 있느냐"고 절규한다. '벌레'가 아닌

전두환, 벌레 이야기

'인간'이라면 때로는 용서가 가장 무거운 벌이 될 수도 있다. 양심의 빛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아공의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라는 이름의 법정에서 백인 인종 차별 주의자들에게 '용서'라는 형벌을 선고했다. "진실을 고백하고 참회하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병에 기대서라도 기억을 지우고 싶겠지만, 피해자들의 기억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재판은 10월 1일 다시 열린다.

/유재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주독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